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영화 '나넬 모차르트'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누나, 나넬 모차르트의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실제로 18세기에 나넬과 볼프강 모차르트 두 남매는 유럽 최고의 연주 듀오로 이름을 날렸으며, 나넬 모차르트는 이미 11세 때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사랑 받았다. 그녀가 여왕제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직접 궁정 예배를 하사받았다는 기록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연주자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하지만 넘쳐흐르는 예술적 능력과 창작의 열망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외면당해야 했던 당시의 관습과, 동생인 볼프강을 최고의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감내해야 했던 나넬의 삶은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의 고통을 대변한다.

어 또한 모두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 교수이자 작곡가인 마리 잔 세레로가 18세기 작곡법을 활용하여 만든 것들이다. 그리고 나넬의 삶은 다른 영화에서 그의 동생인 볼프강의 음악들을 삽입곡으로 들어야 하는 아이러니는 관객을 더욱 슬프게 만든다. 특히 시기적으로 볼프강 모차르트가 누나인 나넬과 함께 상의, 연주하며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아노 협주곡 6번은 그래서인지 우아한 선율과 무관하게 더욱 구슬프게 들린다. 모차르트 연주의 명인들은 무수히 많지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아우를 수 있는 최상의 음반은 피아노의 음유시인이자 불렀던 게자 안다의 연주다. 당대 최고의 모차르트 해석자였던 클라라 하스킬의 영향을 받아 모차르트 음악을 연구하여 연주한 게자 안다는 모

'나넬 모차르트' 中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6번'

천재를 위해 잊혀진 위대한 조력자

이 영화는 모차르트 일가의 유럽 연주 여행을 통해 나넬 모차르트가 작곡가로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 말미의 마차 시퀀스는 이런 나넬의 슬픔을 고스란히 전한다. 연주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볼프강에게 오페라를 작곡하기를 권유하고, 자신에게 작곡법조차 배우지 못하게 했던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몰래 카메라 바라보며 깊은 생각을 잠기는 나넬. 결국 그녀는 후일 사랑하던 자신의 동생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작품을 관리하는데 평생 바쳤으며,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 나넬 모차르트의 작품을 듣는 것은 쉽지 않다. 영화의 오리지널 스크

리프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녹음을 완성한 최초의 피아니스트다. 음반사 도이치 그라마폰과 함께 1967년부터 1972년 사이에 진행된 이 전곡 녹음은 지금까지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의 레퍼런스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독주와 지휘를 통해 완성한 음반으로, 그 가운데 이 6번 협주곡이 담긴 음반은 21번 협주곡을 삽입곡으로 쓴 영화 '엘비라 마디간'을 통해 홍보되어 가장 유명하고 많이 팔린 모차르트 협주곡 음반이 되었다.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들을 들으며, 이 천재적인 선율 속에 위대한 조력자 나넬의 삶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으로 그녀에 대한 헌사를 대신한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리스트>



■광주일보·문화재단 공동 문화나눔 상상강좌 제10탄

장르·세대 아우르는 21세기 음악문화, 광주가 이끌어야

김종률 JR미디어 대표 '대중음악에서 광주의 미래를 찾다'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임을 위한 행진곡" 중에서)

지난 24일 오후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올해 마지막 '문화나눔 상상강좌' (제10탄)는 어느 때와는 사뭇 다른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이날 상상강좌의 대미를 장식한 주인공은 바로 김종률 JR미디어 대표. 전남대 재학 중이던 1979년 '영랑과 강진'으로 MBC 대학가요제 은상을 수상한 음악인이자 '5월 광주'를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국제적인 음반 제작사인 BMG와 소니뮤직 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국내 정상급 녹음실과 스튜디오를 갖춘 JR미디어 대표를 맡고 있다.

'대중음악에서 광주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그는 열정과 문화가 충만한 광주는 아시아 음악산업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광주가 아시아 음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으로 '5·18'과 '다양성'을 꼽았다.

"지난 20여 년간 음반산업에 몸담으면서 40여 개국을 돌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데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광주출신이라고 하면 많은 외국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이 일

어났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국내 다른 지역 사람들도 광주 하면 '80년'과 '맛있는 음식'을 이야기 하더군요. 처음엔 광주의 이미지가 5월과 음식으로만 고착된 것 같아 아쉬웠는데 한편으론 국내외에 광주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는 귀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의 리버풀과 미국의 댄퍼스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각광 받고 있는 건 비틀즈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체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김 대표가 자신이 쓴 수십여 곡의 노래 가운데 지난 2008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포함한 10곡을 인기가수 서영은과 함께 새롭게 앨범을 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재 광주가 지향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대표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음악중심도시를 희망한다"면서 "'문화'의 본질은 다양성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댄스와 아이돌 음악이 모든 음원차트를 싸잡아 하고 불법복제가 판치는 시장에서는 건강한 대중음악이 살 수 없다"며 "발라드, 록, 재즈, R&B 등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이 이들의 평생 서포터즈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4일 열린 문화나눔 상상강좌에서 김종률 JR미디어 대표가 '대중음악에서 광주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편 지난 1일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매월 한차례(7월은 휴강) 개최된 문화나눔 상상강좌는 이날 김동호 대표의 강연을 끝으로 11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문화광주의 내일을 상상하라'는 주제로 10회에 걸쳐 열린 이번 릴레이 강좌는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높여준 명품강좌였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김명권 전 문화관광부 장관, 최태지 국립발레단예술감독, 김홍희 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나희덕 조선대

교수(시인), 박명성 신시뮤지컬 대표, 송효상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송승환 PMC대표(난타 제작자) 등 스타급 강사들이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매 강좌당 200여 명의 시민이 강의실을 가득 채워 고품격 문화강좌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나타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상상강좌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됐다"며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28일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초대손님, 음유시인 백창우

'땀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 11월 행사가 2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매월 한가지 주제로 음악회를 진행하는 김원중씨는 이번 공연의 주제를 '나뭇'으로 잡았다. '비움의 미학'을 몸으로 보여주는 나무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자는 생각에서다.

초대 손님인 가수이면서 시인, 작곡가인 백창우씨. 백씨는 '노래마을'과 어린이 노래집 '굴렁쇠 아이들'을 조직, 삶과 자연을 노래해 온 음유시인이다.

무대를 아름답게 꾸며줄 화가는 신양호씨다. 샌드 애니메이션의 주홍씨, 소리꾼 윤진철씨, 작곡가 김현욱씨 등 매회 함께 작업하는 이들이 이번에도 힘을 보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청춘' 연극수강생 모집 연극놀이·이론·발성 등 수업

극단 청춘(대표 오설균)이 제 5기 청춘연극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 내용은 연극 놀이, 이론, 화술, 호흡, 발성 등이며 독백, 2인 대사, 장면 연기 등 수업 사례 발표회도 갖는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 시민이며 강의는 12월 3일부터 2012년 2월 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오후 7시30분~9시30분) 주 2회 진행된다.

모집 마감은 오는 12월11일까지며 회비는 5만원이다.

한편 4기 회원들은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26일 예술극장 '통'에서 직접 창작한 워크숍 공연 '미(美) 안해요!'를 무대에 올렸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브람스·엘가의 낭만주의 음악여행

내달 1일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권혁주 협연

낭만 음악의 대표적 작곡가인 브람스와 엘가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광주 시향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 '낭만주의의 거장'이 마련된다. 12월 1일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런던 로얄아카데미 지휘와 교수로 BBC 심포니 등을 지휘해온 코린 머터스(시진)가 지휘봉을 잡는다. 레퍼토리는 엘가의 '탄식 작품 70'과 '수송개 변주곡 작품 36'이다.

이번 공연의 협연자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역시 눈길을 끈다. 시향과의 협연곡은 흔히 멘델스존, 베토벤과 함께 3대 바이올린협주곡으로 꼽히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77'이다. 지난 2004년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세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권씨는 러시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부휘셀 필하모니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수화중인 권씨는 금호음악인상을 수상했다. 티켓 가격 3만원 ~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www.geumssoojang.com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노사연 Dinner Show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블룸 2011. 12. 15(목) 19:00

예약 및 문의: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롤케익 증정)